

OPINION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광남시론

신 해양 실크로드, 북극항로와 한반도 통일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박사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갑작스럽게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매입과 중남미지역 파나마운하의 지배권 환수를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영토확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트럼프는 북극해와 연결된 그린란드에 관심이 많으며 그린란드 주민들이 투표로 통해 독립이나 미국에 편입을 결정할 경우 덴마크가 이를 방해 한다면 높은 수준의 관세를 덴마크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해양 실크로드로 각광받는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통고해 아시아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해상운송 경로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과거에 항해가 불가능했던 북극항로가 이제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파피아시 거래권’ 트럼프가 국제적으로 자유를 받으려는 시까지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의 판단으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의도는 크게 3가지가 있다. 먼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북극항로는 기존의 해상운송 경로보다 40% 이상 단축돼 물류혁신이 기대되고 이 항로의 전략적 요충지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하면 북극해상교통과 물류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린란드는 기후변

화로 인해 해빙이 되면서 막대한 희토류와 석유, 천연가스 등 10조달러 이상의 지하자원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국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는 필수적인 지점이다.

그린란드는 NATO 방위의 전략적 핵심이며 러시아의 대서양 진출을 차단하며 미국의 미사일 조기경보와 우주 감시를 담당하는 피투피크(Pituffik) 우주기지가 있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중국이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알고 이 항로를 그들의 ‘일대일로’ 전략으로 만들고자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확보하려고 하니 미국이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잇점은 먼저, 부산항에서 유럽 물류중심지 네델란드 로테르담까지 거리가 약1만3000km로 수에즈운하보다 약 7000km 줄어 들어 항해일수가 약 10일 절약되며, 뉴욕항까지는 약 1만 3000km로 약 5000km의 거리가 줄어들어 6일 이상 단축된다. 둘째, 항해거리가 단축되므로 당연히 통행료가 절감된다. 현재 세계 주요 해운경로인 수에즈운하는 거리가 길고 통행료가 높으며 혼잡비용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2021년 EVER GIVEN 좌초사건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이 운하를 막아 일주일 동안 전 세계 해운에 큰 차질을 초래한 사례는 수에즈운하 의존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셋째, 북극항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경로이나 수에즈운하는 중동정세 불안과 해적활동 등으로 불안한 항로가 됐다.

지난해 홍해에서 발생한 후티반군의 공격은 수에즈운하 인근의 안전성을 위협해 북극항로와 같은 대체경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 북극항로가 2030년 이후 상용화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과거 역사에서 비단길, 향신료길, 대서양 항로 등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큰길들이 모두 한반도를 멀리 버켜

지나갔는데 북극항로가 처음으로 한반도를 경유하게 된다. 우리가 이 기회를 한반도 통일과 4차 산업혁명의 성공 및 선진국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최근 미·중패권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북극항로의 빙하가 녹고 항해가 활성화되는 2030년이 멀지 않았다. 한민족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리해역을 지나는 북극항로를 우리의 상품과 문화를 실어 대양으로 뻗어나가는 해상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부산을 방문해 북극항로의 허브기지로 부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보더라도 이제 북극항로는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고장 목포와 여수는 전진기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며칠전 러시아 푸틴이 한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깜짝 발언을 했다. 이것은 러시아가 러·우전쟁 이후 신동맹정책으로 한국과 전략적인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다.

러시아에 없는 것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 없는 것이 러시아에 있다. 이제 통일된 한민족이 북극항로와 함께 G5 시대를 견인하는 강대국으로 발돋움 해야 한다. 북극항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이 교류하는 한반도 통일은 필수적이다.

세계적인 관광대국이 되려는 북한이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월산, 갈마지구’도 동해안 북극항로에 위치하고 있다. 북극항로시대에 남북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은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또밖에도 미국이 러·우전쟁 중전방면에서 러시아편에서고 있는 것은, 향후 러시아와 북극항로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는 미래는 한반도가 통일되고 한국, 미국, 러시아의 합종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고

돌담,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이어가다

최미숙

전남도의원



돌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흔적이 깃들어 있으며,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그 가치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 돌담을 보존하고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노력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후세에 소중한 유산을 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돌담은 조상들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생존을 위해 쌓아 올린 구조물이다. 필자의 고향인 전라남도 신안군의 돌담은 자연석을 활용하여 섬마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강한 버팀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다.

돌담은 단순한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담아낸 미적 요소이기도 하다. 지역에 따라 강담(돌만으로 쌓은 담), 토담(돌과 흙을 섞어 쌓은 담) 등 다양한 형태를 지니며, 이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맥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 돌담은 시멘트 벽과 블록 담장으로 대체되면서 점차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돌담을 쌓던 기술자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 복원 작업 또한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 신안군은 2019년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돌담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조례는 기존 돌담의 보수, 신규 돌담

설치, 시멘트 담장을 돌담으로 개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며, 매년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돌담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진도 군과 여수시도 관련 조례를 시행하며 돌담 보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돌담 보존은 지역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돌담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돌담을 중심으로 한 문화 관광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돌담은 교육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닌다. 돌담을 통해 우리는 조상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돌담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정부, 학계가 함께 협력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주민 참여형 보존 사업이 중요하다. 돌담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돌담 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단위의 돌담 복원 사업을 장려해야 한다.

특히, 일정한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돌담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보존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돌담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선정된 돌담에 한해 정비와 복원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개인 소유지 내 돌담보다는, 공공성이 높고 지

역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돌담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통 기술의 전수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돌담을 쌓는 기술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이를 보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문화재청 등이 협력하여 돌담 복원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돌담 보존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기술자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전통 석공들을 지원하여 기술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현실적인 법적 지원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돌담 보존 조례를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돌담이 밀집한 지역을 ‘전통 경관 보전 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 대상 지역을 명확히 하고, 보존 지역 내에서 시멘트 담장으로의 변경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돌담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돌담은 단순한 돌과 흙의 조합이 아니다. 조상들의 삶과 지혜,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담고 있는 유산이다. 이러한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돌담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주민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우리의 돌담이 세월을 넘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지금이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보존해야 할 때다.

취재수첩

‘V13’ 노리는 KIA, 다시 축제의 장 만들길

송하중

문화체육부 기자



프로야구 시즌이 돌아왔다.

KBO리그 시범경기가 지난 8일 개막, 오는 18일까지 팀당 10경기씩 총 50경기를 치른다. KIA타이거즈는 롯데디자인즈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정규시즌 전에 멤버

구축을 위한 육성 가리기에 나섰다. KIA는 지난해 광주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의 통합 우승(정규리그·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전신 해태타이거즈 시절을 포함해 12번째 우승을 달성하게 된 KIA는 이로써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면 무조건 우승한다는 ‘불패 신화’ (12번 진출·12번 우승)를 이어가게 됐다.

그 결과 ‘KIA V12 달성 기념 카페레이드’ 행사까지 열렸다. 광주시 추산 1만여명의 시민이 동구 금남로 5

거리부터 5·18민주광장까지 펼쳐진 카페레이드 행사에 참여했다.

거리 곳곳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들의 이름이 적힌 빨간색·흰색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물들었고, ‘압도했다! 최강기아 광주의 힘’·‘V12 광주의 운명이자 자랑’ 등이 적힌 손피켓으로 가득했다.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는 모습이었다.

대권을 탈환한 KIA는 이제 왕조 재건에 도전한다. 앞서 미국 어바인과 일본 오기나와 스프링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렸고, 이번 시범경기 기간을 통해 레귤러 자원을 선발한다.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2025시즌 페넌트레이스에서 반드시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광주시민의 활력소가 된 KIA가 올해 또다시 광주를 들썩이게 해주길 바란다.

사설

지역 AI기업 영세... 지역 대표기업 거듭나길

광주시가 인공지능(이하 AI) 중심도시를 표방하며 인프라·인재·기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현재 광주지역 AI 관련 기업은 모두 150개사에 이르는 데 이들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 10곳 중 7곳이 ‘연매출 5억원 미만’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하인 회사도 80%가 넘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광주인자위)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지역 내 AI산업 관련 기업 71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기업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들 기업중 69.0%가 ‘연매출 5억원 미만’이었으며 ‘5억~10억원 미만’이 14.1%, ‘10억~30억원 미만’이 9.9%였다. 연매출 ‘50억원 이상’은 7.0%에 불과했다.

또 이들 기업중 절반(50.7%)이 넘는 업체가 근로자 수가 ‘1~5명’밖에 안됐고 ‘6~10명’도 32.4%나 됐다. 즉 전체기업의 83.1%가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였다는 얘기다.

이들 기업의 94.4%는 직원들의 직무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AI 기술 사용 시 어려움으로는 ‘AI 인력 부족’(31.0%)을 가장 많이 꼽아 AI인재 양성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 활용을 확대 시 필요한 주요 지원은 ‘자금 지원’이 71.8%로 가장 많았고, ‘기술 지원’ 11.3%, ‘인력 양성’ 8.5%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인자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광주인력개발원, 호남직업전문학교,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 6개 인공지능 훈련과정을 정교과정으로 개설하는 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가 AI 혁신거점으로 고도화하는 AI 집적단지 2단계(2025~2029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도 이들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많이 수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역 AI 기업들이 인력과 자금 문제 등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광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KIA 타이거즈 지역경제 효과 ‘눈에 띄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한다.

광주에서 홈경기가 열린 날에는 지역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10일 지난해 9월과 10월 광주에서 KIA 홈경기가 있는 날(10일간)과 없는 날(10일간) 카드 소비 매출, 유동 인구, 교통량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KIA 홈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가 자리한 북구 임동의 경기 있는 날 소비매출액, 유동 인구, 교통량 모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카드 소비 매출액은 경기가 치러진 10일간 23억1000만원으로, 경기 없는 날(17억원)보다 6억1000만원(35.9%) 늘었다. 유동 인구도 경기 있는 날(32만1000명)이 없는 날(21만2000명)보다 무려 10만 9000명(51.4%)이나 증가했다.

특히 교통량도 마찬가지다. 광주중정역 하차객 수는 경기 열리는 날(12만582명)이 경기 없는 날(10만8000명)보다 11.1%(1만2082명) 늘었다.

광주중합스타터미널 하차객 수도 경기 있는 날(9만4224명)이 경기 없는 날(8만6496명)보다 8.9%(7728명) 더 많았으며 경기장 주변 시내버스 정류장(14곳)도 경기 있는 날(4만5294명)이 경기 없는 날(2만 4431명)보다 85%(2만863명)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해 여행객들이 프로야구 경기 관람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광주만의 대표 관광지 동명동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권역을 순회하는 투어 프로그램인 스포츠 특화 관광상품 ‘야구광 트립’을 이달부터 판매하고 있다.

프로야구 KBO 2025 정규시즌이 오는 22일 개막한다. KIA 타이거즈는 이날 NC다이노스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홈 2연전을 펼치며 9월까지 144게임을 하는 대장정에 들어설 예정이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해처럼 올해도 승승장구해 기록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10	논설실 370-7060
				경제부 370-702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사회교육부 370-7030	임원실 370-7000
				지역사회부 370-7040	총무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입국 370-7090
				편집부 370-7082	광고국 370-7070
				사친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